

10대 대학생·40대 가장, 9명에 '새 생명'

본보 2024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강진식·김경모씨 최근 전남대병원서 뇌사 판정 심장·신장·간장·폐장 등 기증...각각 5·4명 살려



강진식 김경모

뇌사 판정을 받은 10대 대학생과 40대 가장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9명에 새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다.

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강진식(19)씨는 지난달 19일 키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의상성 경막하 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지만, 다음 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강씨는 가족 동의로 환자 5명에게 심장, 좌우 신장, 간장, 폐장 등을 기증하고 영면했다.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1학년 재학 중이던 강씨는 졸업 후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

3남1녀 중 둘째로 태어난 강씨는 편의점과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용돈으로 주변인을 잘 챙겼고, 운동

을 좋아해 배드민턴 동아리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주변에 베풀기를 좋아하던 아들이라 보니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인 장기기증에도 찬성했을 것이라 생각해 가족 모두 동의했다"며 "이식받은 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서구, 양동통맥축제 19일 개막

광주 서구는 15일 "제2회 양동통맥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약 2주간 양동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축제는 매주 금·토 양동전통시장 6번로와 태평교 일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5시 주무대에서 지역예술팀 공연으로 시작되며 K관광마켓 미래비전 선포식과 양동통맥축제 매뉴 페어이드 및 시식 순으로 이어진다.

축제 기간 6번로와 시장 내부 일부는 '이팅존(Eating Zone)'으로 꾸며져 식음 테이블 200개가 설치되고 매일 '2024년의 천원맥주'와 함께 양동 대표음식인 통닭과 닭꼬치 등 60여 종의 음식이 판매된다.

/주성학기자



봄비 속 꽃물결 넘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봄비가 내린 15일 오후 북구 두암동 동강대 교정에 울긋불긋 꽃망울을 터트린 철쭉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김애리기자

'창립 30주년' 5·18재단, 왜곡대응백서·30년史 발간

활동 성과 알리고 미래지향적 의미 담아...오는 8월30일 기념식

5·18기념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월정신을 기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15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올해 재단 설립 30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알리고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내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체험한 시인들이

창작한 시·소설 등을 담은 오월문학총서는 다음 달 25일 발간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진행한 5·18 왜곡 대응에 대한 종합책임백서를 발행한다.

앞서 5월10일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아카이브 전시공간을 조성, 시민과 공유하는 '오월문화예술 특별기

획전'을 선보이며 같은 달 전국 동네 책방에서 민주주의·인권·공동체 등 1800년 5월 당시 들불야학을 모티브로 한 강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또 5월14-18일 인권·민주주의 등을 공부하는 외국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광주민주포럼'에서 국제연대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기억과 기념, 연대의 미래'를 주제로 한 5·18국제포럼, 국제인권활동가

들이 참여하는 5·18아카데미 등도 진행한다.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오는 8월30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5·18기념재단의 지난 30년 역사를 집대성한 '5·18기념재단 30년사'도 출간한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5·18 정신 계승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걸음을 더욱 적극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59 해질 19:06
🌙 달돋이 11:52 달지 02:09

인천	10/16	서울	12/20	대전	12/22	강릉	15/24		
전주	12/21	광주	13/22	대구	14/24	부산	15/22		
제주	13/20	여수	14/22	충청	12/21	경북	14/16	도도	14/16

광주 맑음	13/22
목포 맑음	12/18
여수 맑음	14/22
나주 맑음	11/21
완도 맑음	12/22
구례 맑음	13/23
강진 맑음	11/22
해남 맑음	11/21
장성 맑음	11/21
보성 맑음	11/22
순천 맑음	13/23
영광 맑음	11/19
진도 맑음	10/19
흑산도 맑음	11/19
고흥 맑음	12/23

● 생활정보지수

👨‍👩‍👧‍👦 **너들이 30** 여행 떠나요
👕 **빨래 20** 야외근조 좋아요
🚗 **세차 2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70** 준비운동은 충분히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0.5-1.0
남해 앞바다	1.0-1.5	0.5-1.0
남해 먼바다(북)	1.0-1.5	0.5-1.0
남해 먼바다(남)	1.0-1.5	0.5-1.0
남해 먼바다(동)	1.0-1.5	0.5-1.0
남해 먼바다(서)	1.0-2.5	0.5-1.5
서해 먼바다(북)	0.5-2.0	0.5-1.5
서해 먼바다(남)	0.5-2.0	0.5-1.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7:56	14:01
여수	02:47	09:46
녹동	15:13	21:22
녹동	03:46	11:21
녹동	16:06	22:24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4월 17일(수)	☀ (9/23)	☀ (10/23)	☀ (15/21)	☀ (10/24)	☀ (12/19)
18일(목)	☀ (11/25)	☀ (11/24)	☀ (12/22)	☀ (11/26)	☀ (13/20)
19일(금)	☀ (11/25)	☀ (12/24)	☀ (14/23)	☀ (12/26)	☀ (14/23)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교육청 "교사 수업 성장 지원"

연간 16회 다양성 수업 초대

광주시교육청이 다양성을 품은 '수업으로의 초대' 제도로 교사들의 수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양성을 품은 '수업으로의 초대'는 지난해 수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됐던 다양한 수업의 참관 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비롯한 창체·통합수업 등 연간 16회의 수업을 계획해 월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수업 공개지는 지난해 수업 실천사

레 발표대회 임상교사, 수석교사, 수업·평가 혁신 현장지원단 등이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신청을 통해 수업 참관 가능하다. 수업 참관 후에는 해당 수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수업 고민을 찾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토의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참관 교사는 수업 내용과 함께 다양한 수업 운영 방식을 경험하고 이를 학교로 돌아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수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업 실천 전문기를 양성하고, 교사·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수업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문의 : 062)650-2099